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N.E., Seattle, WA 98125 (206) 778-1972  
 Paul H. Shin,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VOL. 2 NO. 3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CH 1975

### 「한국의 밤」 행사 마련코 조국을 소개

합병준주미대사, Daniel Evans 주지사 부부를 비롯한 지방 각계 인사 백여명 초청

한인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9년이만 세월호 짙어졌고 광복 30년을 맞이하는 1975년은 한 민족 재미 교민사에 뚜렷한 한 페이지를 남겨야 된다는 사명감이 한인사회에 주어져 있다.

돌아오는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OLYMPIC HOTEL Grand Ball Room 에서 개최코자 하

75년도 E.O.C. 이사장에 이현기 선생 피선코 활약

현 한인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현기씨는 그동안 창립때부터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에서 수고한 보람이 있어 한국인으로는 처음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에 지난 1월에 피선되어 임기 1년간을 수고하게 된다. 이 E.O.C.는 Asian-American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 사모아계)를 위한 직업알선과 또 직업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며 시애틀시 당국과 워싱턴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인데 현재 안병영씨가 이사장이고 한국인 카운셀러로는 김흥기씨와 권명길씨가 수고하고 있다.

는 「한국의 밤」 행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인회 이4몇 임원들의 발의로 계획 추진되어 워싱턴 D.C.의 합병준주미대사와 상항의 윤찬 총영사와의 긴밀한 연락과 Daniel Evans 주지사와의 협조로 웅망히 진행되어 온것이다.

- 2명으로 기사 계속 -

이창희 선생 장로 잠립식  
오허근박사 집사로 안수

3월 16일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김동협목사시무 : Sea-Tac 한인교회)에서는 이창희 선생(73세)의 장로 잠립 및 오허근박사(48세) 집사 안수식을 260여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김동협목사의 사회로 예배 및 안수식을 가졌는데 순서는 김동협목사의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주제의 설교에 이어 두 분에 대한 안수가 있었고 두 분을 위한 세 분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안수위원은 최용길목사, 정남식목사, 윤십원목사, 서두수장로, 신호법장로 제4했으며 식에 이어 간단한 저녁식이 있었다.

- 3명으로 기사 계속 -

### 제 56회 3·1절 기념식

워싱턴 대학에서 성대히 거행

제 56회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하오 7시에 워싱턴 대학 Kane Hall 에서 학생회 주최 한인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백여명의 학생 및 교포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김철준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개회사에 이어 애국가 봉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문명관양의 시 낭송등의 1부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 2부 기념 음악회 순서로 들어가서 보이올린과 피아노 독주, 솔로 등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장소를 Hub Hall로 옮겨 다과회를 마련코 이날의 뜻을 기렸다.

### 한인회에서 학생회에

장학금 100불 기증

이날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교포들은 학생회에서 마련한 장학금 기금함에 성금을 넣었는데 신호법회장이 한인회를 대표하여 100불을 기증하였다.

### 「한국의 밤」 개최

#### 공 고

7천여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한인회가 발족한 지 어언 9년. 조국광복 3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이 해를 맞이하여 한인 교포사회와 한국의 문화를 미국사회에 소개코려 합병준주미대사, Daniel Evans 주지사 부부를 비롯한 지방 각계 유지를 초청코 아래와 같이 개최코려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날자 ; 1975년 4월 24일 목요일  
 시간 ; 오후 7시  
 장소 ; Olympic Hotel Grand Ball Room  
 순서 ; 만찬 및 민족 소개  
 회식비 ; 1인당 \$ 7.50  
 예약처 ; 전화 364-2729, 522-4139  
 회식비 납부처 ;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  
 11514 15th N.E.  
 Seattle, Wa. 98115  
 예약마감 ; 1975년 4월 15일  
 한인회 회장 신 호 법

### 한인회 주최

### 제 1회 워싱턴주 교회대항 배구대회 개최의건

새 봄을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께서 아래 장소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  
 대회일시 :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회장소 : Shoreline Community College (체육관)  
 1601 Greenwood N. Seattle  
 한인회 회장 신 호 법

「한국의 밤」 행사 마련코 조국을 소개  
합병준주미대사, Daniel Evans 주지사 부부를  
비롯한 지방 각계 인사 백여명 초청.

— 1면에 계속 —

이번 시도하는 「한국의 밤」 행사는 역대 한인회에서  
개최하려고 여러번 노력했으나 예상과개로 미루어 왔  
던 "숙제의 책"이었으며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7000  
여 교포들의 꿈이기도 했다.

이렇게 미루어 왔던 「한국의 밤」 행사 목적은 첫째,  
한 미 두나라의 우호증진과 둘째, 이 주에 거주  
하는 7,000여명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사회내에서의 법적지위 및 권리보장을 얻기 위  
합이며 아울러 한국 커뮤니티의 능력을 연방정부, 주  
정부 및 각 시, 카운티에 알리고자 함이다. 셋째는  
이 워싱턴주에 약 400여호나 되는 한국 교아들을  
보살피는 미국인 양부모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며 고  
맙다는 인사를 함이다.

한국의 밤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해서 합병준주미  
대사 내외분, 윤찬 총영사 부부 및 Richard G.  
Matheson와 워싱턴주 명예 영사가 참석하여 Daniel  
Evans 주지사 부부를 비롯한 Wes Ulman 씨애  
를 시장 부부 등 지방 각계 인사(장계, 학계, 언론계,  
경제금융계 및 종교계) 100여명을 만찬에 초대  
하여 한국의 민족음악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을 알  
리는데 목적이 있다.

급변에도 「한인주소록」 발행키로.

지난 1월호 한인회보에 「주소록」을 실려야 하  
지만 주소록에 누락된 분이나, 주소이전 또는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지면을 할애했으나  
너무나 많은 「주소록」 가입자(?)들 때문에 즐거움  
비밀만 지를 수 없어 「한인 주소록」을 8월 중에 다  
시 발행키로 한인회 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한인회보에는 「주소록」이 없었으며 보내주신  
주소 및 변경사항은 새로 만드는 1975-1976년도  
「한인 주소록」에 실림과 동시에 회보는 계속 보내드  
리겠습니다. 작년 발행된 주소록에 한글이름이 누락  
된 분이나 잘못 기록된 분은 편집자에게 보내주던지  
전화로 알려주시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Phone: 632-5322

해군 합정 이양식 거행

3월 14일 금요일 타코마에서는 그동안 타코마 모  
선박회사에서 건조한 최신행 해군 합정 2척의 이양식  
이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이양식에는 신호법 한인회 회장 및 임원과 이현  
기, 남희 노을 등 두 분 이사도 참석하였다. 특히 타코  
마 부인회에서는 꽃다발 증정을 하였는데 그동안 인  
사 차 타코마에 파견됐던 해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동포  
의 정으로 위문을 하여 흐뭇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한인회 회비 납부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  
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5불 이상이며 단 18세 이상인 학  
생 및 독신자는 3불인데 아래 양식에 주소, 성  
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본회의 재무인 김종구  
에게 우송해 주길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 때  
는 수표나 "머니오더"를 이용하고 현금은 절대  
로 동봉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회비를 내신  
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매달 발행되는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  
으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취 선

한인회 재무 김종구 귀하.  
To: CHONG Koo KIM, Treasurer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3051 37th N.E.  
Seattle, Wa. 98125

1975년도 회비 \$5.00 이상 (독신자  
\$3.00)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 \_\_\_\_\_, 도합 \$ \_\_\_\_\_ 을 동봉함  
니다.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A.A.A.C 에 세분 추천키로

한인회 합동회의에서 결정

워싱턴주 지사 직속 아세아문제 담당부(Commissi  
on on Asian American Affairs)에서 그동안 수  
고했던 김혜영목사의 사업에 따라 한인회에 정  
으로 한국대표 1명의 추천의뢰가 왔기에 3월 16일  
한인회 이사회, 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투표에 의하여  
세 분을 추천키로 했다.  
이 날 투표결과 신호법 한인회장, 이현기 부이사장,  
황수철 부회장 등 세 분을 추천키로 하고 결정은 A.A.  
A.C.에 맡기기로 했다. 이 A.A.A.C.는 워싱턴주 지  
사의 특명으로 1972년 4월에 설치되었던 The  
Governor's Asian-American Advisory Coun  
cil이 1973년 2월 주 상하양원을 통과한 House  
Bill No. 1169에 의하여 Washington State Comm  
ission on Asian-American Affairs로 이름을 바  
꾸고 1977년 6월 30일까지 주지사실에 속한 기관  
이다. 동양계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다루는 주  
지사를 비롯한 각 주 정부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이 기관의 설치에 한인회에서도 1974년 1  
월 120명의 서명을 얻어 주의회 상하원 의장 및 각  
분과 위원장들에게 보내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  
지 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상원의장 John Che  
gery (부지사)와 하원의장 L. Sawyer 등 요인으  
로 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지지하겠다는 뜻의 편지를 받  
은 바 있다.

발전 거듭하는 씨애틀 한인 학교

1주 2일 (수, 토요일)의 수업연장

73년 10월 초에 개학하여 지금까지 발전을 거  
듭하여 온 「한글 학교」가 작년 개교 1주년을 맞아  
「씨애틀 한인 학교」로 개칭하고 주일학교식의 학습  
분위기를 벗어나 정규 교과 과정에 준하여 수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비교인 및 단 교회에 적을 둔 교포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건물을 물색중 워싱턴 대학 부근  
이나 Green Lake 부근의 건물로 결정이 되는 듯  
했으나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현재 초급반 19명, 중급반 10명, 고급반 12 명으  
로 합계 41명이나 되는 학생을 위해 매주 일요  
일 실시하던 수업을 초급반·중급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15분 ~ 7시 30분 까지와 매주 토요일 12시  
부터 1시 반까지 모두 2시간 45분의 수업을 하며  
고급반은 매주 토요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2시간 수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수업료는 1인 5불, 2인 8불,  
3인 10불 (한 가족에 한함). 우선 불학기부터는  
2104 N. 187 Seattle, Wa. 98133 전화 367-  
0183, 774-7828에서 실시하며 교동판계는 학  
교에서 편의를 도모해 준다고 한다. 특히 한국문교  
부에서 교과서와 한국소식에 관한 책자가 많이 도  
착했다고.

송철호 박사 타코마에 귀임.

노래하는 선교사제로 유명한 정신영 교 집창단을 해마다  
미국에서 순회공연 할 수 있게 추천한 송철호 박사는  
타코마에 본부를 둔 Teen Life International 대  
포로 수고하고 있지만 씨애틀과 타코마를 포함한 미  
서부지역 순회를 마치고 (85일간 140여회의 공연) 단  
원 일행을 한국으로 무사히 보낸후 타코마 자택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 1면 에서 계속 —

이 날 오랫동안 씨애틀 한인사회에서 물심양면  
으로 어려운 일을 맡아 도와주셨던 이창희 선생  
과 숨은 봉사자인 오하곤 박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  
인 260여명의 내빈, 가족 및 교인들은 입주의 여  
지없이 교회건물을 매웠으며 씨애틀 한인 교회사  
상 유례없는 큰 잔치였다.

이 창희 선생 약력: 1902년 강원 伊川에서 출생.  
1908년 세례. 원산에서 중학까지 마침. 19  
27년 연희전문 문과 졸업. 1930년 도미.  
오 하곤 박사: 1927년 1.1. 황해도 신천서 출생.  
1946. 4. 평양선학교 수료. 1952년 서울대  
수의과 수료. 1956년 도미, Wash. State U  
niv. 농학과 석사. Wisconsin 주립대 생화학  
Ph.D. Calif. of Univ. 7년간 교편. 현재  
Weyerhaeuser Co.에서 근무.

자동차 수리  
정 운영  
전화: 937-2454

시계 수리  
이 병익  
전화: 525-9031



**NORTHWEST ORIENT**


\*여행의 상담자\*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창성  
624-2227  
624-2228  
RES. 776-7115

**김창성 여행사**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는 주택알선
- 토지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호법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제 五十六 회 三-절을 맞이 하면서

- 세계사적 의의를 생각 해 본다 -

박 압

환경과 권력이 시대와 역사를 만들고 시대와 역사가 환경과 권력을 만든다면 민족은 이 환경과 권력과 시대와 역사를 따라 그 개성이 생기고 개인은 이 민족속에서 개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한 민족을 볼때에 그 현실적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민족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그 민족의 우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면 그 현실적 사실에서부터 그 민족의 과거 즉, 환경과 권력과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가 우수했던 민족은 대체로 현실도 우수할 수 있고 과거가 열등했던 민족은 대체로 현실도 열등하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거가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민족도 있었고 과거가 항구적이지 못했음에도 우수한 현실을 가지고 사는 민족도 있고 비참한 종말을 고했던 민족으로서 그 우수성을 재현해서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예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흥망이 있어도 민족의 운명은 영원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 자기 국가를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할때를 다행한 시절이라고 하고 자기 국가를 남에게 침략 당하고 남의 나라의 통치하에서 압박과 구속을 당하고 사는 민족은 그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다 불행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자기 나라를 남에게 빼앗긴 민족은 비록 살아가는 자기의 조상 땅에 산다고 해도 산다는 그 땅이 벌써 남의 땅이 되었고 산다는 그 삶이 자기의 능력과 소망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억압과 구속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언제나 종속적, 노예적 생활이 아니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체 활동, 일체의 생산은 그 모두가 다 자기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에게로 귀속하게 된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지위와 생활이 이렇고 보니 이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네들의 전통과 역사를 토대로 한 자기의 의무를 말할 권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자기의 법률을 자기의 풍속과 민도에 알맞게 제정할 권리도, 경제와 교육을 이들의 소망대로 할 권리도 없었다. 오직 있는 것이 있다면 의무와 복종 밖에 없었다.

사람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말할때에 의무와 복종안에 살아야 한다면 여기에는 인격이나 인권이나 있을 수 없다. 이야말로 인간이하의 처지, 즉 노예의 처지이다. 소와 말은 주인을 위해 충실히 일만해 주면 채찍도 고문도 없지만 노예는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주어도 때로 채찍이 오고, 고문이 오고, 감옥살이가 오고, 사형까지도 손쉽게 당한다. 이러한 침략자의 피침략자에 대한 참혹한 처우는 피침략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 충실할수록 침략자는 엄벌주의로 이들에게 가혹히 가혹을 터했다. 이렇게 억압, 구박, 고문이 심하다고 해서 자각과 기백이 살아있는 우수한 민족은 이로서 그만 주저하지는 않는다. 사람이란 사람이어서 이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되면 이 무도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다. 사람의 이러한 심적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극한된 심적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하늘로서 타고난 천성으로 그 누구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이 피침략 민족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그 가혹 비참한 처지가 같음으로서 다 같이 침략민족에 대한 반항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 민족정신과 이 반항정신의 일치하는 그들로 하여금 단결케 하였고 단결한 민족은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됨으로 여기서 강한 침략자의 불의와 약한 피의자의 정의가 투쟁을 벌여 약한 피침략자는 강한 침략자에게 강탈을 당한 국권과 인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강한 침략자는 비록 불의의 기득권이나마 그 이득을 위해 이를 지키려고 한다. 일체 침략 후 수년이나 길러온 작계집, 5, 6년 길어 양성되어 온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당면의 적이자 제국주의의 일환인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제국주의를 종교보다 더 신봉하던 당시의 위 세계의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의 三-운동은 우리의 독립투쟁은 물론 세계의 국가를 잃은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三수리 방방곡곡에서 전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사를 걸고 총결기했던 세계의 불의에 대한 일대 항쟁이었다.

이 三- 독립운동이야말로 정의가 무기보다 강하고 인도가 침략적 제국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하나의 산교훈을 우리 역사에는 물론 세계사에 기록할 수 있는 선구적 사명을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침략적 제국주의에는 반드시 인간대 인간의 투쟁과 살육과 파괴를 초래하지 않은 정의와 인도는 인간대 인간의 결합과 자유와 평등을 초래하는 바깥에 세상에는 질서가 서고 평화가 서게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일본은 물론 세계의 강대제국주의국가에 대해 선도했던 것이다.

세계 제 1차 대전이라는 세계의 비극후에 인류는 세계 평화를 위해 약간의 각성이 있었으나 그대로 살육과 파괴의 제국주의의 야욕에서 정의인도도 방향 전환을 못하고 드디어 인류유사 이후 최대의 살육과 파괴를 강행했던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고 인류의 피와 눈물위에 서게 됐을 때에 갈로 불의로 일어난 세계의 제국주의는 과거의 살아 올린 그 거대한 죄과로 인해서 사기그릇 부서지듯 망해 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세계, 억압에서 해방으로, 구속에서 자유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세계로 되돌아 왔다. 우리 조상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5, 6년전 제국주의가 잔을 치는 그 때에 벌써 정의인도와 자주 독립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세계의 불의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았는가? 상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절대적인 협, 불의에 항쟁하는 이상의 강한 협이 어디 있었는가? 그 시대가 불의의 시대인만큼, 우리 조상이 그 소위의 폭력을 달성지 못한 것은 그 정의인도에 대한 신념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질과 무기에 약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이후로 강약에 대한 정미가 아주 뒤바뀌어서 인간자체의 강함, 즉 정의인도의 강함을 강함으로 하지 않고 인간 밖에 강함 즉 물질과 무기의 강함을 강함으로 해서 이를 추구하고 이를 존경한 까닭에 세계는 원년이 하나의 아수라지옥처럼 되어 개인대 개인, 가문대 가문, 계급대 계급, 민족대 민족, 국가대 국가가 서로 시거하고 모략하고 강탈하는 투쟁을 전개해서 편만이 살수 있는 세상도 편안하게 살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도 위와 같이 현명하고도 용감한 조상의 뜻을 이어 서로 돕고 의지하고, 단결해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촉진을 위해 우리가 또 다시 세계에 선구하는 명예를 차지해야겠다.

한국 문화·전통 교육을 위한 자료 모 집

우리 자비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면은 한국의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도와 줌으로써 올바른 자기인식(自己意識)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교육부에서는 한국문화전통소개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씨애틀 교육구 및 씨애틀 공립 도서관과 같이 쓸수 있도록 분배하겠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 자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한국문화전통을 배울수 있으리라는 소신에서입니다. 우리들 가정에는 꼭 필요한 것 외의 여분의 것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수 있는 것들이 많이 풀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씩 모아 정리하면 좋은 자료원이 될 것이며 작은 그림책이라도 도움이 되오니 한번 집안 구석을 뒤져서 얻는 무엇이든 한국적인 것으로 꼭히 필요치 않은 것이 있으면 따로 두었다가 한인회에 기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하여 주실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그림, 이미 다스다 남은 그림엽서, 옛날의 달력 그림등.

한인 제일교회에서 용접 기술 교육 실시.

새로운 한인 교포들의 어려운 구직장에 보탬되고자 한인 제일교회(김혜성 목사 사무)에서는 고창수씨의 도움으로 용접기술을 지도한다고 한다. 현재 타코마에서 자동차 수리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고창수씨는 보수 좋은 용접사 기술을 널리 보급시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보람을 얻고 싶다고 한다. 관심이 있는 분을 고창수 씨(588-6939)이나 씨애틀 한인 제일교회(634-3250)로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 2. 못 쓰게된 벽거리 등등. 3. 꼭히 필요치 않은 인형, 목각, 등등. 4. 한국적인 식기, 그릇, 수저 등등. 5. 못 입게된 한국옷, 신발 등등. 6. 그 외 무엇이든 한국적인것을 보이는것들. 보내일곳: Korean Association 11514 15th NE Seattle, Wn., 98103 만일, 무거운 물건으로 우편기증이 어려우신 경우엔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한인회원이 순회하여 모집하겠습니다. 교육부: 오 계희 Tel: 522-4139

한인회 4월 정기 임원회는 4월 17일(목) 오후 7시에

지난 2월 한인회 정기 임원회에서는 모든 교포들이 직접 한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리에 개최기로 결의된 한인회 정기 임원회는 13일(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어 한국의 밤 1 행사 및 제 1회 한인회 주권 배부 시합 등 신작한 행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4월 정기 임원회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체바퀴 돌듯 이어가는 하루속에 잠시故郷에 묻혀 두고온 꿈들을 캐어 볼수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같은 인생의 春夏秋冬속에 가슴깊이 지며 두었던 "불꽃"같은 戀 情들을 詩人들의 노래로 되씹어 볼수 있다는 실낱같은 浪 漫이라도 찾아 들수 있다면... 찰라속에서 영원으로 향한 꿈이라도 피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조그마한 지면에 한국 현대시인들의 사랑의 詩歌를 실어 감상을 결드릴까 하오니 「한인회보」 독자 여러분께서 애송시에 감상문을 첨부해서 편집자 관동씨에게로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詩歌 1

노천명 蓄 薇 노천명 망속 붉은 蓄薇를 우리직곤 적어 보내놓고 그 날부터 내 안에선 煩惱가 자라라 니 水晶 같은 맘에 나 한 點 티되어 무겁게 자리하면 어찌하랴 차라리 얼음같이 얼어 버리련다. 하늘 보며 나무모양 두둑 서 버리련다. 아니 落葉처럼 쉽게 날려가 버리련다. \* 노천명은 고독하고 불행스런 날들을 보냈지만 그의 명혼의 꽃밭은 언제나 아름답고 명품 하였습니다. 볼보다 뜨거운 정열을 안으로만 감추고 살던 여인. 펼쳐 쏟아놓기보다 가슴속에 담아 잡고 인내하던 시인의 면모가 <蓄薇>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속 붉은 蓄薇를 우리직곤 적어 보내놓고...> 장미처럼 붉은 사랑을 바치고도 행여나 그 사랑이 그 대에게 부당스런 점이 된다면 어찌하나, 그 대에게 괴로움을 드리면 어찌하나, 그렇게 되니 차라리 얼음인양 목석인양 내 그리움을 감추어 버리리, 멀리 떠나가 버리리라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女心이 담겨 있습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Philip Byung-Yong Ahn, Realtor. Includes text: '믿고 또 찾는 인·병·용 부동산 보험', '가옥 매매', '부동산 투자', '사업체 알선', '차보험', '집보험', '저축생명보험', '교육 보험', 'Value Realty Prudential Insurance Co.',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컬립>

湖畔

우산과 같은 월·혜어

- 소니아 김 -

\* 편집자주: 워싱턴주 보건 사회부 사회과에 근무 하면서 한인회 신임 교포문제 위원회 위원인 소니아 김 여사가 그동안 느낀 소감을 보내왔기에 실린다.

“당신은 보건 사회부가 당신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며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과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집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울립 피아에서 번역부락이 왔다. 미국말이 우리 말보다 어려운 데다가 미국적인 “권리”를 우리 한국사람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 모든 권리 내용이 미국말로만 쓰여져 미국인에게만 소개된다면 그 권리란 우리 교포에게 있어서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가 아니겠는가?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모여사는 나라를 원하는 정부도 있을리 없다. 우리 교포 중에는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월·혜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 우리나라 이조때 풍년에 곡식을 거두어 놓았다가 흉년에 배급주던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혜어란 1601년 영국의 극빈자구호법(Elizabethan Poor Law)에서 시작된데와는 역사적으로 그 뜻이 사뭇 변했다. 미국이란 조랑기부터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물려든 이민들로

어룩된 나라이다. 고국을 떠나 낯선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은 길을 잃기도 하고 불안해져 방황하기도 하며 소외감때문에 잡몹 이루면서 내일 어떤 직업을 구하게 될지 고민한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 알려고 하지 않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열광들. 이 중에 섞인 외로운 이민들은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미국의 풍요한 풍경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위압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기회관등과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는 미국인의 꿈을 배반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의 불행은 국가 전체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소외된 이민들에게 미국적 사고와 생활 방식을 안내해 주기 위한 재교육, 그리고 미국이 주는 모든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소개해 주기 위해서 생겼던 월·혜어이기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가 월·혜어 사업을 국가 기관으로 설립하기에는 또 한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었다.

X X X

1910년에 담배 수공업자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자들중 20년이 지난 1930년에 들어선 열 명의 기술자중 아홉명이 직업을 잃고 그후 오 년 동안 방황했다고 한다. 그중에 한 기술자는 겨우 그 직업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새로운 담배기계를 사용하는 재교육을 받고 난 후였다.

몇세대동안 노동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조상이 물려준 그 땅에 할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기술만으로 손자가 농사를 짓고 살수 있었던 옛날이 지나간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문명에 크게 공헌한 산업주의와 기계문명은 농민을 공장으로 이주시켰고 이렇게 해서 모였던 공장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의 전문화와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인해서 내일 무슨 기술을 사용해서

어느 누구와 삶의 경쟁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속으로 돌아 세웠다. 농장보다 공장은 산골로도 많았고 인간적인 문제보다는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는 공장장. 그들은 노동자가 인간 로버트일 바라는 것 같았고 개인의 행복문제에는 무관심한 듯 했다. 밤에 걸려 누어 있으면 찾아와 줄 아웃이 없었고 내 걱정을 떠놓고 이야기 해 볼 친구도 없었다.

1930년 경제공황 당시에 미국의 실직자수가 인구의 사분의 일이 었다고 하니 지금의 7%인 Seattle 무직자 수와는 비교도 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빈든 사회속에 고민하는 현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소위 1935년 소시얼 세큐리티법(Social Security Act)이다. 결국 우리가 내는 수입세, 영업세, 토지세등의 세금으로 개인의 경제생활을 사회 또는 국가 전체가 책임지고 도와 주자는 기관이 설립된 것이 지금의 건강 교육 복지 사회부이다(Dep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이로 인해서 노인, 불우자 또는 직업을 잃은 자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건강을 돌보게 해준 것이다.

“저는 젊어도 그 짓은 못하겠어요.” 월·혜어신청은 구걸이라고 생각해서 쟁쟁한 한국인은 오히려 친척이나 친구집에 눌러 사는 걸 맘 편하게 생각한다. “왜 저희 부모만 현금을 주고 나는 1/6세인데 못 도와 주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미국인의 반응.

“당신이 누구십니까,” 보다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미국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그 개인의 경제가치에 따라 재보려고 한다. 개인의 기술과 능력으로 가정, 사회, 국가, 나아가선 인류전체에 공헌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고려할때 또는 “딴없다”는 생존을 뜻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외에도 중요한 가치관이 열여덟가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 비록 정부의 보조를 받더라도 내 힘과 지식과 기술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자립함으로써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월·혜어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 남을 도와 줄수 있는 내일을 위한 건별목이 될수 있는 게 아닌가? 비가 내릴때 우산을 쓴다고 책피할 것 있을까?

Baby sitting Wanted!!

Ms. Yim, Chong SiK  
928 N. 88  
Seattle, Wa. 98103  
전화 : 522-0199

Ms. Lee, Byong IK  
1215 N.E. 55th St.  
Seattle, Wa. 98105  
전화 : 525-9031

등 窓 景

김 현중씨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 지난 3월 1일 모친상을 입고 급히 고국에 갔다가 15일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 무수히 장례식을 마쳤다고 하나 슬픈 마음 달래길이 없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달고 용기를 내시길.

김 길량씨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일보 사애틀 기사를 인수중이라는 소식.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 회장이기도 한 씨는 금년에 보다 부주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아무쪼록 잘 되시길!!

유용녀씨 (타코마의 업거로씨 모친)가 3월 13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소식. 가족들의 명령에 태산 같다고 하며 아무쪼록 완쾌되시길 紙上으로 빌겠습니다.

회비 납부자 (3월 20일 현재)

- 31. E. or S. J. Norquist \$20.00
  - 32. 심 상현 5.00
  - 33. 변 종혜 5.00
  - 34. Young Sun Aramaki 5.00
  - 35. 김 실동 5.00
  - 36. Tahn B. Chong 10.00
  - 37. 김 광성 10.00
- 계: 60.00  
누계: 296.00

24. 박 관하는 박관화씨로 정정함.

Volunteer 환영!!

한인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려운 교포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용의가 있는 분은 심별, 연령을 불문하고 한인회 정·부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편의 제공할수 있는 분 (급할시)
2. 통역, 안내를 말할수 있는 분.
3. 한글 타자기 칠수 있는 분.
4. 영문 타자기 사용할수 있는 분.
5. 회의록 작성.
6. 기타 일손이 필요할때 도와주실수 있는 분.

**동양상점**  
한국고구미와 맛을 자랑  
신품 (주소) 10618 BRIDGEPORT VILLA TACOMA  
신품  
\*월~토 10:00AM~8:00PM  
\*일요일 12:00AM~6:00PM  
582-5565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사회에의 바람직한 제안, 정부당국에의 제언,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주시면 심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실때나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편집을 맡은 과공세 씨에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FROM THE HEART OF THE GARDEN

日光園キャバレー  
NIKKO GARDEN  
1421 - 6th AVENUE • SEATTLE, WA 98101  
Telephone: 624-3947

INTERNATIONAL GO-GO DISCOTHEQUE  
Continuous entertainment from 1 p.m. - 7 days  
Specially acts - Air-Conditioned

Guide to Nikko Garden  
20 gorgeous international go-go girls to entertain our guests in a friendly Oriental atmosphere.  
New snack bar, public dance floor and a spacious recreation room with modern pool tables and other amusements.  
For your comfort and enjoyment, your choice of girl to dance by your table for a minimum charge.  
Attractive Oriental barmaids and your own go-go girls to serve you.

諸君光臨無任歡迎  
飲酒聽歌  
長駐歌舞  
高麗女郎  
最好去處  
各國佳麗  
懇懇款容

## K O R E A N N I G H T

THE KOREAN NIGHT will be held at 7:00 p.m., on April 24, 1975, Thursday, at the Olympic Hotel (Grand Ball Room), inviting Washington state dignitaries as honored guests including Governor Daniel Evans, Seattle Mayor Wes Uhlman, and more than 100 civic and business leaders in this area.

There will be a reception hour, dinner, and programs featuring Korea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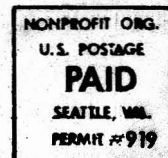
Our Korean Ambassador, the Honorable Ambassador Pyoung-Choon Hahn will be the featured speaker.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show the appreciation of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tate to the leaders of the area for their efforts and attitude in improving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to build closer understanding between them, and to honor our Ambassador and Mrs. Hahn.

--0--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